

(3) 東南亞 通貨 危機

- (現況) 97년 7월 2일 태국정부, 환율변동을 완전 자유화
 - 외환부족으로 바트貨 매입을 통한 바트貨 방어에 한계
 - 이후 바트貨 가치 폭락: 20% 절하
- (原因) 바트貨 위기의 주요 원인은 태국 정부의 정책 실패,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,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심화 등임
- (展望) 동남아 통화위기 확산 전망
 - 국제 투기성 단기자금이 태국에서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등지로 흘러가고 있음
 - 그러나 태국의 외환사정이 양호하고,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 위기 때보다는 테킬라 효과가 작을 것임

■ 現況

7월이후 바트貨 20% 절하로 통화위기
감 고조

○ 태국 바트貨 폭락

- 90년대초부터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태국 바트貨 절하 압력 증가. 그러나 태국 정부는 해외 투자 유인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바트貨 강세 유지
- 97년 3월과 5월 바트貨 평가 절하를 기대한 국제 투기 자금, 소위 Hot Money성 자금이 외환시장에서 바트貨 대량 매각에 나섬
 - 외국인의 바트貨 구입을 금지 시키는 외환 동결 조치 선언
- 97년 7월 2일 태국정부, 환율변동을 완전 자유화
 - 외환부족으로 바트貨 매입을 통한 바트貨 방어에 한계
 - 이후 바트貨 가치 폭락: 20% 절하

■ 原因

○ 태국 정부의 정책 실패

- 금융긴축
 - 외자유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잡기 위해 금융 긴축
 - 이는 금리 상승을 유발, 핫머니 유입을 자극

**바트貨 위기의 원인
은 정책실패, 경상
수지 적자 누적, 금
융 시스템의 불안정
등임**

- 바트貨 환율 고정 정책
 -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25บาท 선을 유지
- 바트貨의 평가절하를 기대한 핫머니가 바트貨를 투매하면서 바트貨 위기가 촉발됨

○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

- 수출부진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
 - 96년 수출이 전년대비 0.2%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8%에 이른다

○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심화

- 부동산 투기 과열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투신회사 등 금융기관의 신용이 추락
 - 유입된 해외 자본이 대부분 부동산과 증권 시장의 버블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부실 여신이 증가함

■ 展望

**동남아 전역에 걸쳐
통화위기 확산 조짐
심화.**

○ 동남아 데킬라 효과 지속 전망

- 동남아 통화위기 확산 전망
 - 국제 투기성 단기자금이 태국에서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등지로 흘러가고 있음

○ 멕시코 위기 때보다는 데킬라 효과가 작을 것임

- 태국의 외환 사정 양호
 - 태국의 총외채 (8백92억 달러)와 외환보유고(3백38억 달러)가 멕시코 위기 당시보다 훨씬 양호
- 일본의 구제 금융
 - 동남아를 엔터프라이즈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온 일본이 구제금융에 나설 의사를 표명 (2백억 달러 상당의 구제 금융)

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
국내기업의 동지역
투자에 따른 환차손
및 수출 감소 효과
우려

-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의 환차손 발생
 - 현재 우리 기업이 태국에 직접 투자의 형태로 유입된 자금은 1.6억 달러임. 이에 대한 20%의 환차손은 3천2백만불에 해당함
 -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지역에 대한 국내 금융 기관의 포트폴리오 투자 및 여신 자금에 대한 환차손임

<한국의 동남아 직접투자 규모>

(단위: 천\$)

	태국	필리핀	말레이시아	인도네시아
허가	203,733	258,860	321,030	906,104
투자	162,414	224,081	284,959	677,216

주) 해외투자통계연보 1997, 한국은행

○ 수출입 관련 영향

- 마트貨 및 이지역 화폐의 절하에 따라 국내기업의 동지역에 대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임
- 또한 이지역 화폐들의 연속적인 절하는 이를 국가들의 주요 수출 제품과 경쟁 관계에 국내 제품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침 (양 두 용, 김 연호)

<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입 현황>

(단위: 백만\$)

	태국	필리핀	말레이시아	인도네시아
수출	696	432	1,056	784
수입	268	178	1,705	842

주) 1996년 3/4 분기, IFS,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, 1997. 3